“희망 학생 누구나 참여”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

전북교육청, 3월부터 운영… 도내 늘봄 희망 초 1~2학년생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월부터 전북형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체제다.

2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기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통합돼 늘봄학교 체제로 전면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집중지원 대상이 확대돼 늘봄을 희망하는 초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2월 말까지 도내 국·공립 초등학교 409곳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늘봄학교 안전관리 시스템이 강화된다.

학생 맞춤형 귀가를 위한 대면 및 동행 귀가 지침을 보완하고, 늘봄실무인력·학교 안전지킴이·경찰관 등을 활용해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초등학생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및 인터폰, 비상벨 등 안전설비도 강화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학부모의 양육 부담과 사교육비 경감에 힘을 쏟는다.

지난해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씩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이어 올해는 2학년까지 대상을 확대, 실시한다.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역대학 및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교밖 늘봄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학교밖 늘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밖 늘봄기관(217개 기관) 및 거점돌봄센터(전주, 군산, 고창 4개 기관)를 운영해 학교 안 수요를 학교 밖에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교원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데도 공을 들인다.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지원실을 구축하는 한편,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사, 돌봄전담사 등의 인력을 배치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체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늘봄 서비스를 제공해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나아가 학생유출 없는 전북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새로운 시작, 빛나는 내일 응원”

국립군산대 전기학위 수여식
학사 등 총 1366명 학위 수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축사도

20일 국립군산대학교 아카데미홀에서 제43회 전기학위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이장호 총장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국립군산대학교는 20일 교내 아카데미홀에서 제43회 전기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사 1,184명, 석사 116명, 박사 66명 등 총 1,366명에게 학위를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가족, 교직원, 재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국립군산대학교를 찾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정 전 의장은 먼저 “국립군산대학교에 온 이유는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려운 악조건을 딛고, 국립군산대학교가 교육혁신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선도모델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축하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꿈은 스스로를 두 배, 세 배, 열 배로 성장시키는 마법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니, 졸업식장을 나서기 전에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라”고 조언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5대부터 20대 국회에 내리 당선된 6선 국회의원으로, 헌정사상 유일하게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에 등극했다.

한편 이장호 총장은 “이번 졸업식이 단순한 학위 수여식을 넘어, 새로운 출발점에서 희망과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뜻깊은 자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졸업생 대표로는 국어국문학과 두진휘 학생과 역사학과 이규호·박순정 부부가 답사를 맡았다. 두진휘 학생은 “2023년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군산구도심 리서치, 국어국문학과 문집편집위원장 등 교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쳐왔다.

두진휘 학생은 “졸업하는 지금 처음 입학할 때보다 조금 더 어른이 된 것 같다”면서, “졸업식이 끝나면 모두 각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나 자신과 타인에게 다정한 하루 하루였으면 좋겠다. 4년의 기억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튼튼한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호(69), 박순정(68) 부부는 나란히 역사학과에 21학번으로 입학해 함께 졸업하는 특별한 사연으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반려자와 함께한 4년간의 대학생활은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입학 때의 떨렸던 순간과 졸업의 이 순간이 꿈만 같다. 누구나 마음을 먹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캠퍼스 곳곳에는 꽃벽 포토존, 인생네컷 즉석 사진 부스가 마련되어 졸업생과 가족이 기념 촬영을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학과 및 동아리 선후배, 지도교수, 가족,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가 담긴 가로등 배너가 캠퍼스 곳곳에 설치돼 눈길을 끌며, 졸업생들의 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내일을 응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올해 전북대학교 ‘더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에 그리스와 에콰도르, 우루과이, 스페인, 벨기에,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등 10개국 30개 대학에서 78명의 학생이 참여해 2주 동안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다.

한파 녹인 한국문화 열풍

전북대 단기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더 필링 코리아’
올해 첫 프로그램 10개구 78명 외국인 학생 참여 ‘호응’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기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더 필링 코리아(The Feeling Korea)’가 외국 대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올해 첫 필링코리아 프로그램에 그리스와 에콰도르, 우루과이, 스페인, 벨기에, 베트남, 일본, 중국, 태국 등 10개국 30개 대학에서 78명의 학생이 참여해 2주 동안 다채로운 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올해는 그리스, 에콰도르, 우루과이,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참가해 참가국이 다양해졌다. 이 중 그리스와 스페인은 지난해 양오봉 총장이 국외 출장 당시 방문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해 이 프로그램이 유학생 유치와 대학 홍보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는 2023년 172명, 2024년 289명이 참여해 한국문화와 전북대에 대한 외국 대학 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외국 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전북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기초 한국어를 익히고, 오후에는 한복체험, 전통 공예 체험, 비빔밥 체험, 전통 혼례 체험, 다도 체험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과 무주 덕유산, 서천 국립생태원, 경복궁 등 지역 곳곳을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돼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학 아나스타샤 학생은 “한국 문화를 좋아해 유럽에서 한국 음식과 노래를 접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문화를 더욱 깊이 즐길 수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 2주가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태국 나레수안대학교 아트 학생은 “전북대의 따뜻한 환대와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다양한 나라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교류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함께한 모든 친구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기억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더 필링 코리아 프로그램은 전북대의 국제화 비전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게 전북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대학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정부부처, 고등학교 등 다양한 기관과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유학생 유치와 대학 홍보에 필링코리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

미래교육연구원, 24~25일 국제 콘퍼런스 개최
전북형 미래교육 모델 개발 · 실천 기반 조성 도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미래교육연구원(원장 장익)은 오는 24~25일 이틀간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를 넘어 새로운 우리의 만남’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교육계, 학계, 산업계 등이 상호 협력을 통해 전북형 미래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교육혁신 사례를 확산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중점을 뒀다.

콘퍼런스는 AI 기술로 촉발된 다양한 교육혁신 사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특강으로 운영된다.

1일차에는 ‘디지털 대전환과 미래교육(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이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발표 ‘딥시크 쇼크와 AI&디지털 교육(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 △패널발표 ‘AI와 디지털 교육의 국제 동향(미국, 일본, 스웨덴 사례)’ △특별 강연 ‘교원 행정업무 경감 및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 등으로 이어진다.

2일차는 △주제발표 ‘AI 시대의 교육 변화 및 교사의 역할(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 △패널 토론 ‘국내 교육청의 AI 및 디지털 교육 사례(서울, 경기, 충남)’ △특별 세션 ‘전북교육청 미래교육 정책 및 전략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는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포럼 형식으로 진행되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오는 23일까지 전북교육연수포털(https://jbstudy.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전 신청자는 1일 6시간, 2일 12시간의 연수시간이 인정된다. /장은성 기자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상시적 협업

전주대, 전북교육청 · 양현중학교 · 은화학교 등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사범대학은 ‘2025학년도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사업’에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면서 관련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학교현장실습학기제는 예비 교원의 학교 현장 역량 강화와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한 것으로, 지난 19일 전주대학교 진리관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주양현중학교, 전주은화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임산 장학관, 전주양현중학교 전승덕 교장, 전주은화학교 박계숙 교장, 전주대학교 윤마병 사범대학장을 비롯한 협약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은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을 위한 상시적 협업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참여 학생 지원 △교원양성기관-실습협력학교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앞서 전주대는 2024학년도 1차년도에 학기제 현장실습을 수료했다.

2025학년도 2차년도 시범사업에는 총 5명의 사범대학 학생이 전주양현중학교 및 전주은화학교에서 학기제 현장실습을 이어간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스포츠산업 예비 · 초기 창업기업 모집

내달 15일까지 11개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3월 15일까지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는 스포츠분야의 예비창업자부터 창업 3년 미만 기업 11개사를 모집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가 있으나 스포츠산업과 관련 없는 이종 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라면 예비창업자로도 신청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평균 4,5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단계별 창업교육 및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장은성 기자

기전대 ‘졸업생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선협상 대학 선정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졸업생특화 프로그램’ 사업의 우선협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기전대는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5,000여만원을 지원받아 맞춤형멘토링, 기업탐방, 자기주도취업지원 프로그램 등 진로·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오늘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1일 전주 ㈜휴먼제이앤씨에서 퇴직 예정 교육공무직원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퇴직 예정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 교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올해는 2025년 퇴직예정자 중 희망자 121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상반기 과정에는 희망자 4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미래준비 △변화관리 △자기이해 △진로 및 제도 탐색 등을 주제로 생애·진로설계 기본 교육을 받은 뒤, 개인별로 진로설계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은퇴 이후의 삶을 직접 설계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올해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19~20일 이틀간 목포 일원에서 2025년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본청 및 직속기관·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는 예산업무 담당자들의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UBIS) 사용법 안내 △특별교부금 운용 요령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대응 방안 등 예산편성과 운용에 대해 상호 공유했다.

특히 의회협력담당의 지방의회 역할 및 의회 운영 과정 교육도 진행해 예산담당자가 의회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향후 의회와의 소통·협력으로 효율적인 예산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